

국민연금기금, 세계적 운용 역량 입증

글로벌 투자 전문기관 평가서 역대 최대 7관왕... PERE·AAM·IPE·디에셋 등 국제 투자 전문매체 잇단 수상

국민연금기금이 글로벌 투자 전문기관들로부터 운용 역량과 투자 성과를 인정받으며 역대 최대인 7관왕을 달성했다. 세계 주요 연기금 가운데서도 안정적인 운용 능력과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글로벌 투자 전문매체들이 주관한 각종 시상식에서 총 7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부동산과 실물자산, 연기금 운용, 지속가능 투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국민연금의 투자 역량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 3월 글로벌 부동산 투자 전문매체 PERE(Private Equity Real Estate)는 국민연금을 '올해의 기관투자자(Global Institutional Investor of the Year)'로 선정했다. PERE는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성과를 비롯해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용한 투자 기회 발굴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투자 전문매체 AAM(Asian Asset Management)



국민연금기금이 글로벌 투자 전문기관들로부터 운용 역량과 투자 성과를 인정받으며 역대 최대인 7관왕을 달성했다.

은 국민연금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우수 연기금'과 '한국 최우수 연기금'으로 선정했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 성과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해외투자 역량 강화 노력이 주요 선정 이유로 꼽혔다.

지난 5월에는 영국 실물자산 투자 전문매체 IPE Real Assets가 주관한 'Real

Estate Global Awards 2026'에서 '포트폴리오 구성'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자'와 '코어·코어플러스 전략' 부문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IPE는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투자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투자 효율성과 분산투자 역량

을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는 아시아·태평양 금융투자 전문지 디에셋(The Asset)이 주관한 'Triple A Sustainable Investing Awards 2026'에서 '올해의 연기금상(Investor of the Year)'을 수상했다.

디에셋은 국민연금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글로벌 투자 역량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꾸준히 고도화해 온 점을 주요 수상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2018년 이후 9년 연속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연기금 기관상을 수상하는 기록도 이어가게 됐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연금의 장기투자 철학과 운용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과 글로벌 수준의 운용 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JB 생활요금 계좌자동이체 이벤트

전북은행, 자동이체 신규 등록 고객에 최대 1만5000원 캐시백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생활요금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JB 생활요금 계좌자동이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전북은행 입출금 통장에 생활요금 자동이체를 신규 등록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는 자동이체 등록과 잔액 자동충전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이벤트는 아파트관리비를 비롯해 상수도·도시가스요금, 보험료, 전기·통신요금, 카드대금 등 5개 항목 가운데 2개 이상을 전북은행 계좌로 신규 자동이체 등록하고 정상 출금한 고객 전

원에게 5천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한 자동이체 출금 실적 1회 당 두 번째 이벤트 추천권 1매도 함께 지급된다.

두 번째 이벤트는 첫 번째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고객 가운데 모바일뱅킹 앱 '쓱뱅크'에서 '잔액 자동충전 서비스'를 신청하고, 다른 은행 계좌에서 월 50만원 이상 자동 충전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매일 30명을 추첨해 1만원의 캐시백을 추가 지급하며, 두 이벤트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최대 1만5천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전북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뱅킹 앱 '쓱뱅크'를 통해 응모한 뒤 조건을 원에게 5천원의 캐시백을 제공한

원에게 5천원의 캐시백을 제공한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국민공모전 수상작 선정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기안전 정책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30일 전북 혁신도시 본사에서 '제5회 전기안전 국민공모전' 본선 심사를 열고 전기안전 정책 및 일상생활 안전 개선 분야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기안전 정책과 제도 개선, 일상생활 속 전기안전 향상 방안 등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전기안전 제도개선 정책 제안과 일상생활 전기안전 개선방안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326건의 제안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모았다.

예선을 통과한 8개 작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발표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 결과 전기안전 제도개선 정책 제안 부문에서는 부경대학교 팀이 제안한 '노후 ESS 화재 예방 정밀안전진단 제도 신설'이 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일상생활 전기안전 개선방안 부문에서는 충남대학교 팀의 '전기안전카드를 활용한 주거시설 전기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대상에 선정됐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혁신기업 실무자 간담회 갖고 소통 나서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혁신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신규 지정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7월 1일 '2026년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혁신기업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혁신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사업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혁신기업 실무 담당자와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신규 지정 기업을 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 정보를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신규 지정 혁신기업 소개 △혁신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 및 주요 일정 안내 △전북테크노파크 요청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 설명 △기법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특히 기존 혁신기업들이 신규 지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요청자료 작성 요령과 제출 절차를 안내하는 실무 가이드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오상근 기자

바이오진흥원, 전북형 케어푸드 산업 육성 박차

제품 개발·인증·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 지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지역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케어푸드 산업 육성을 위해 제품 개발부터 인증, 사업화까지 전 주기 지원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최근 '지역특화자원 연계 맞춤형 케어푸드 제품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안내 세미나와 맞춤형 컨설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식품기업들이 개발 중인 케어푸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제도 대응과 시장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는 도내 식품기업과 지자체 연구소 등 12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6개 과제를 추진한다.

참여 기관들은 전주 콩나물콩, 임실 섬진강 다슬기, 고창 복분자, 남원 오미자, 순창 장류, 진안 홍삼 등 전북 대표 농생명자원을 활용해 근기능 개선과 근골격계 건강 증진, 체중 조절, 인지기능 개선 등을 위한 케어푸드 제



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식품팀이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와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했으며, 참여 기업과 연구기관 관계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제품 특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한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됐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사업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자체 연구소, 식품기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도 제품 개발과 기

성 효능 평가, 인증 제도 대응, 사업화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전북형 케어푸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연구소는 지역특화자원의 소재화와 가능성 평가를 담당하고, 참여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시장 진출이 가능한 케어푸드 제품을 개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는 물론 식품기업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중기부, 전북테크노파크·전주대와 지역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테크노파크와 대학의 연구 역량을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문제 해결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7월 1일 대전탑스타운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충남테크노파크, 전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과 함께 '2026년 테크노파크 장비 활용 기반 혁신성장 협력지원 사업'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테크노파크가 보유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